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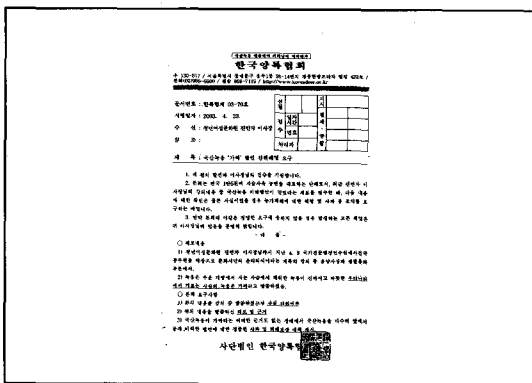
여성문화원 진민자 이사장, 국산녹용 비하 발언 파문

- 공무원 대상 교육 중 “국산녹용은 가짜”라고 말해, 본회 강력 반발 -

지난 4월 9일 국가전 문행정연수원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화시민의 윤리의식’이라는 제목의 강의 중 청년여성문화원 진민자 이사장이 국산 녹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양록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 강의를 접한 익명의 제보자는 진이사장이 ‘문화시민의 윤리의식’이라는 제목의 강의 중 음양사상과 생활문화 부분에서 “녹용은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이 진짜며 따뜻한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사슴의 녹용은 가짜”라며 국산녹용을 비하했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접한 본회 성락 사무총장은 곧바로 진민자 이사장에게 전화통화를 실시, 강력하게 항의했다.



본회 성총장은 진이사장에게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그와 같은 발언을 실시했느냐며 강하게 따져묻고 “재정적인 부분이 허락되지 못해 대중매체를 통해 국산녹

용의 우수성을 홍보하지 못하는 아쉬운 입장이 국내 양록농가”라 설명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의 발언, 특히 공개석상의 강연인만큼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해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이사장은 “양(陽)의 대표는 인삼, 음(陰)의 대표는 녹용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일부 표현이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국내 양록현황을 전혀 몰랐으며 실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홈페이지는 물론 향후 강연을 통해 해명토록 하겠으며 양록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올 시 이에 대한 공식 해명도 실시할 것”고 말했다.

또한 “국내산 녹용의 우수성에 대해 아는 부분이 없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면 검증후 향후 강연시 국산녹용 홍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 발언 사실여부 ▲ 발언의 의도 및 근거 ▲ 국산녹용 비하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 및 피해보상 대책 등을 제시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진이사장측으로 발송했다.

진이사장은 현재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국정홍보처 홍보위원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으며 중앙대, 건국대, 인천대 등에 출강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양록**